

GCF, 아프리카와 태평양 지역에 기후재원 기초공사 다져

2017.7.27. 송도 - 녹색기후기금(GCF)은 기후재원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최근 확대했으며, 아프리카와 태평양 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우선 사업준비금융(Project Preparation Facility, PPF)을 통한 사업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접근 인증기구인 르완다 천연자원부에 70만 불을 제공했다. 이는 GCF가 기후재원 사업 발굴을 위해 무상증여 방식으로 책정한 PPF 지원금 150만 불 중 일부이다.

또한 GCF 능력배양 사업활동으로 국가 주인의식 및 기후재정 접근 강화를 위해 모리타니아에 12만 불을 지불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는 이집트, 가나, 요르단, 몰디브, 네팔, 통가의 기후 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위해 140만 불 이상을 지원했다.

그 외에도 남태평양공동체 사무국(SPC)에 대한 두 번째 분할지원금으로 13만 불을 제공하기도 했다. SPC는 26개 태평양 지역 군소도서국이 관리하며, 태평양지역 기후변화 적응·감축 사업 설계 및 이행을 조정하는 기구로 GCF로부터 30만 불 지원금을 받기로 되어있다.

지금까지 GCF는 능력배양 활동으로 9백만 불 이상을 전 세계 개도국에 지원한 셈이다.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gcf-lays-climate-finance-groundwork-in-africa-and-the-pacific?inheritRedirect=true&redirect=%2Fhome>